

'2005 여성특허기술대전' 개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 입국을 위한 여성 신기술인의 발굴 일환으로 '2005 여성특허기술대전'을 오는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여성특허기술의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우수특허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여성 발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전은 산업자원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이 후원한다.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을 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해서 7월 9일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창의성과 기술성, 산업상 이용성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 1명, 금상(특허청장상) 2명, 은상(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 5명을 포함한 총 33명의 수상자는 자신의 특허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여성 발명인들의 발명활동 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또는 협회 사무국(02-538-2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 안의 금융시대' 열린다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의 잔액조회, 계좌이체, 예금조회, 환율조회, 자기 앞수표 조회, 거래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뱅킹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에 관련된 출원이 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도에 10건을 시작으로, 2002년도 21건, 2004년도 24건이 출원되는 등 출원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된 특허를 통해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관련기술을 살펴보면, 크게 휴대폰에 내장된 스마트카드에 자신의 금융정보 등을 저장해 이용의 편리함과 보안을 강화한 스마트카드 방식, 휴대폰에 모바일뱅킹용 프

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거래 때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이용하는 방식, 또는 휴대폰과 은행 시스템 사이에서 거래 내용을 문자로 전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식에 따라 보안 수단이나 접속 절차에 차이가 있다.

모바일뱅킹은 보안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뱅킹과 구별되고,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뱅킹과 구별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모든 이동통신 업체로 확대되고 있고, 은행들과 이동통신 업체들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과 모바일 기능의 확장의 용이성으로 인해 모바일뱅킹은 언제 어디서든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뱅킹 시대를 주도할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 이름 가명 사용 못해

앞으로 유명 영화배우, 텔런트, 운동선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머그컵 및 각종 복제음반을 함부로 팔아선 안되며, 유통업소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자신의 가명으로 사용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 국회 문광위 박찬숙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페블리시티(초상재산권)' 조항을 삽입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다. 현재 외국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페블리시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한류 열풍 등으로 최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페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적 이윤을 박탈당했던 부분이 수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페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고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밝혔으며 권리의 주체는 단순한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페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양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반도체, 백색 LED 특허소송 승리

올해 국내 시장이 6천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삼성전자 공급업체 서울반도체와 이즈웰의 특허싸움에서 서울반도체가 승리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반도체가 지난 2월 이즈웰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즈웰이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색 LED는 휴대폰 화면 및 키패드의 광원으로 쓰이는 차세대 발광소자로,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백색 LED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즈웰이 지난 2003년부터 백색 LED 생산에 나서자 작년 12월 이즈웰에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으나 이즈웰은 '서울반도체 특허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므로 무효'라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백색 LED 특허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됐다. 서울반도체 측 이수완 변호사는 '우리 특허는 기존 기술과는 다른 한층 진보된 기술'이라며 '이번에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받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이즈웰은 삼성전자에 각각 백색 LED를 공급하고 있다.

**믿음의 기업
인성내츄럴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앞장서온 글로벌기업, 인성내츄럴!
인성내츄럴은 천연의 원료만을 사용하는 건강전문회사로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리더자를 양성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늘 깨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앞선 기업, 인성내츄럴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건강을 전달하는 믿음의 기업
(株)仁成内츄럴
<http://www.isn21.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11 한진빌딩 T.080-563-8509

■ 내츄럴 기능성 식품

- 인성헬스효모: 영양공급, 신진대사
- 인성프로폴리스: 건강 증진, 영양공급
- 인성알로에분말: 장운동, 장기능 도움, 면역력증강
- 인성감마리놀렌산: 풀레스테롤 및 혈행의 개선
- 인성카라본글루코사민: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
- 인성클로렐라: 체질개선, 건강증진
- 인성홍삼인케어: 원기회복, 지양강장
- 인성비타민: 항산화작용
- 인성오가피: 건강증진, 신진대사 원활
- 인성보리슬림다이어트골드: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

■ 내츄럴 기능성 화장품

- 인성매라디아회장품: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보호 (비타민, 삭물성콜라겐 등 함유)
- 인성녹두팩: 녹두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만듦
- 인성비디크림: 미네랄, 녹두, 인삼, 해조 추출물 등 함유
- 인성비누: 각종 자연 피부보호제 첨가

■ 어린이 상품

- 인성큐: 성장 및 건강증진 도움

■ 내츄럴 기능성 치약

- 인성풀리스: 항생, 항균, 소염작용, 충치예방